

智瑩의 <參禪曲>에 나타난 禪思想 研究

金 周 坤

<차 례>

I. 緒 論

II. <參禪曲>에 나타난 禪思想

III. 作品에 나타난 空思想

IV. 修辭法

V. 結 論

I. 緒 論

禪佛敎는 禪의 수행으로 佛法의 진리를 체득한 선각자의 인격적인 일상생활 그 전부를 말한다. 그래서 '自覺의 宗教'이며 '生活의 宗教'라고 말한다.

參禪이 오늘날 불교의 대표적인 실천 정신으로, 인류의 지적 유산으로 각광을 받고 주목되고 있는 것은 각자 자기의 인격 형성은 물론 생활종교로서 확립하고, 평범한 일상생활을 지혜로운 삶으로 가꾸면서 끊임없이 면면히 이어왔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禪은 인간의 이러한 자기 모순 속에서 자기의 참된 모습을忘却하고 自我의 주체를 상실한 채 밖을 향해 이익을 추구하고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간의 잘못된 가치관을 바로 잡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자기자신의 참된 삶을 가꾸면서 살도록 길을 제시하고 있는 평범한 일상의 생활 종교이다.

佛敎歌辭의 연구는 歌辭文學의 총체적 모습의 파악과 韓國 古詩歌 정리를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라 하겠다. 이에 대한 既存 研究를 보면, 韓國佛敎歌辭의 發展過程을 밝힌 研究¹⁾, 歌辭 작품에 나타난 佛敎思想을 추출한 연구²⁾, 佛敎歌謠에 대한 개괄적인 연구³⁾, 佛敎歌辭에 나타난 思想 研究⁴⁾, 佛敎歌辭의 作家와 作品 研究⁵⁾ 등이 있고, 韓國

1) 李相寶, 「韓國佛敎歌辭의 歷史的 考察」, 『明大論文集』, 第4輯, 明知大, 1971.

2) 金起東, 「國文學의 佛敎思想 研究」, 東國大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76.

佛教歌辭의 形成 背景·作家·作品·思想·形式의 特性 등을 綜合的으로 研究한 論文⁶⁾도 있다.

本稿는 『韓國佛教歌辭全集』⁷⁾에 실려 있는 智瑩禪師의 作인 <參禪曲(1)>·<魔說歌>·<奠說因果曲>·<修善曲>·<勸禪曲> 등 5편의 佛教歌辭 중 <參禪曲>에 나타난 禪思想을 살펴 보려 한다.

본고에서는 먼저 <參禪曲>의 發展 樣相부터 살펴 보고 나서 作品에 나타난 空思想과 修辭法을 考察하는 순으로 論議를 전개하러 한다.

II. <參禪曲>에 나타난 禪思想

智瑩의 불교가사 불암사본 <參禪曲(Ⅰ)> 말미에 “甲寅孟冬 法性山 無心客 印慧信士 智瑩述”이라고 한 데서 정조 18년(1794)경의 인물임을 알겠다. <魔說歌>가 수록되어 있는 『樂府』를 보면 “靑霞士 智瑩述”이라 해놓았는데, 靑霞士란 佛巖寺 藏版인 『持經靈驗傳』과 부록으로 인각한 불교가사류의 교정자 善遊의 호이며, 智瑩은 印慧信士 또는 聳虛信士라고 刊記에 나와 있다.

-
- 3) 金聖培, 「韓國佛教歌謠의 研究」, 東國大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76.
 4) 高光榮, 「佛教歌辭에 나타난 諸思想 研究」, 國民大 教育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84.
 拙稿, 「懶翁歌辭에 나타난 淨土思想 研究」, 『慶山大學論文集』第8輯, 1990.
 ———, 「佛教歌辭에 나타난 無常思想 研究」, 『大邱語文論叢』第9輯, 1991.
 ———, 「佛教歌辭에 나타난 淨土思想 考察」, 『大邱語文論叢』第10輯, 1992.
 ———, 「佛教歌辭에 나타난 因果思想 研究」, 卞廷煥 博士 華甲記念『韓國學論叢』, 1992.
 ———, 「佛教歌辭에 나타난 勸佛思想 考察」, 『嶺南語文學』第21輯, 1992.
 ———, 「韓國佛教歌辭에 나타난 孝思想 研究」, 『嶺南語文學』第28輯, 1995.
 ———, 「佛教歌辭에 나타난 忠思想 研究」, 『慶山語文學』第1輯, 1995.
 5) 具壽榮, 「懶翁和尚의 西往歌 研究」, 『國語國文學』第62・63(合), 1973.
 金鐘雨, 「懶翁과 그의 歌辭에 대한 研究」, 『釜山大 論文集』第17輯, 1974.
 崔康賢, 「鏡虛禪師와 그의 歌辭에 對한 考察」, 『首都工大 論文集』第3輯, 1971.
 拙稿, 「回心曲 研究」, 『大邱韓醫科大學論文集』第4輯, 1986.
 ———, 「奠說因果曲 研究」, 『嶺南語文學』第24輯, 1993.
 ———, 「善心歌 研究」, 『語文學』第59輯, 1996.
 6) 金周坤, 「韓國佛教歌辭 研究」, 大邱大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91.
 7) 李相賢, 『韓國佛教歌辭全集』, 集文堂, 1980.

智瑩禪師의 <參禪曲>은 『持經靈驗傳』·『釋門儀範』 등에 실려 있는데 이는 木版本으로 268구로 되어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 대본으로 삼은 『佛教歌辭全集』에 실려 있는 智瑩의 <參禪曲> 佛岩寺藏板 260구로 되어 있다. 그 내용은 妄想煩惱가 허물이니 諸行無常을 깨달아 一心念佛할 것을 권한 것이다.

이제부터 智瑩의 <參禪曲>에 나타난 禪思想을 看話禪과 默照禪으로 分類하여 考察하고자 한다.

1. 看話禪

看話禪에서 看은 見의 뜻이요, 話는 公案을 뜻한다. 公案이란 마음을 밝게 깨닫는 것이다.

看話禪의 취지는 중생들의 마음과 부처님의 마음이 온전히 同體로서 그 사이에 高下의 차별이 없고 평등함을 확신하여 근기의 利鈍을 헤아리거나 高요함과 시끄러움에 관계없이 高요한 경지에 이르는 것이다.

※ 1 何何何	우사울사	2 허물된말	우사울사
3 잊지하야	허물인고	4 본래空寂	無相事를
5 漏泄하야	일으려니	6 잊지아니	허물인고
7 평등不動	無高下를	8 動舌하야	자랑하니
9 이런고로	허물일세	10 不生不滅	무거래를

衆生들은 空寂無相事를 누설하고 無高下를 動舌하고, 有相無相이 同一함을 是非하니 허물이 많다고 했다.

佛性은 곧 理라는 점에서 華嚴의 理는 '性卽理'라고 하여 論理上 결함이 발견되지 않는다 하겠다. '性卽理'의 意味이다. 그리고 이것은 程·朱의 性理學에서 하나의 命題화된 '性卽理'와 내용상으로 같지 않지만 字義上은 一致하고 理論的인 構造的 骨格面에서도 大差가 없다고 하겠다. 내용상 다른 點이란 華嚴哲學에서의 佛性은 근본적으로 法性이라고도 表現할 수 있듯이 全的으로 中道空의 입장에서 說해지는 空寂眞心인데 反하여, 程·朱의 性理學에서의 性은 天命의 性(天命之謂性, 『中庸』)으로서 그것은 구체적으로 仁義禮智 四端之性으로 말하여, 이것이 곧 理라는 것이지 心은 아니기 때문이다.⁸⁾

※ 引用作品 앞의 숫자는 原歌辭의 句 번호임.

離心은 無生에 이르는 가장 바른 길이요 無意識 속에 이름으로써 天真面目에 들게 되는 心理의 方法으로 가장 根源의 方法이라 하겠다.

『楞伽經』에서 離心은 自性을 啓發하는 길이요, 離想은 起念을 없애는 方便이며, 離言은 眞如를 發見하는 길로서 事實上 自性の 本然을 찾는 方向이라 하겠다.

결국 초월의 상징은 이러한 無의 개념 속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다. 有라는 존재가 다만 有의 현상에 국집해 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無의 근원을 想定하고 있을 때 이 有는 곧 초월화되었고 상징화된 것이다. 이러한 경우의 상징은 근원을 바탕한 상징이다.⁹⁾

修道人은 항상 身・口・意를 조심해야 한다. “身口意는 재앙의 뿌리요, 또한 도의 근원이니, 재앙은 배어 없애고 道는 원만케 하며 일곱 가지 惡을 제거하여 언행을 단정히 하고 세 가지 느낌 고요히 하면 마음 근원 맑으리.”¹⁰⁾

19 苦樂榮枯	업남相을	20 선업악업	分說하니
21 說者아니	허물인가	22 體同太虛	本寂한대
23 妄想煩惱	일러시니	24 허물이라	못하올까
25 不垢부정	無染相을	26 유색무색	詰難하니
27 自然허물	아니될까		

衆生은 善惡業을 分說하고 煩惱妄想으로 눈 앞의 苦와 樂에 迷하여 三毒이 일어나고, 方圓長短의 相을 논하고, 無形・無情・無名한 道를 求하고자 하니 허물이 많다고 했다.

『육조단경』에서도 북종선의 대표자인 선수가 “마음은 거울과 같고, 몸은 거울의 받침대와 같은 것, 부지런히 마음의 거울을 털고 닦아서, 번뇌의 먼지가 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읊고 있다. 그리고 ‘空함도 空한 지혜’이니, 말하자면 경계와 지혜가 함께 空하고 이 空한 것까지도 空한 줄을 아는 것이다.¹¹⁾

禪의 길을 防害하는 것은 곧 妄想이니 妄想을 떠나는 것을 離心 또는 離想이라고表現하고 있다. 『七卷楞伽』卷 3에,

8) 宋在雲, 「華嚴의 心과 理에 관한 研究」, 『論文集』(仁川大學, 인문・사회과학편) 제8집, 1985, p. 218.

9) 金雲學, 「禪語의 象徵性」, 『韓國文學論 研究』, 大學文化社, 1978, p. 125.

10) “三是禍根 亦道元 禍須令滅道須圓 掃除七支端身口 寂然三受淨心源.”

11) “空空慧 謂了境智 俱空 是空亦空.”

금의 티끌을 털어내듯이
물(水)의 더러움을 제거하듯이
허공에 구름이 없는 것처럼
망상의 淨도 이와 같다.

라고 하는 것도 같은 형태이다. “만약 망념이 없으면 곧 깨달음이다.”로 매듭짓는다¹²⁾.

禪佛敎의 기본사상은 지금 여기 현재의 현실 속에서의 자기 비판과 끊임없는 자기 반성을 통하여 자기의 평상심(불성)인 근원적인 주체를 재확인하는 것이다. 언제 어디에서나 순간이라도 항상 자기의 주체를 잃지 말고, 평상심으로 편안하게 살아가며 우리들의 평범한 일상생활 그 전부를 자기의 진실된 삶으로 엮어 가는 생활정신이 선불교의 실천사상이라고 하겠다.

智瑩의 작인 <參禪曲(I)>에서는 우리가 아는 지식이란 영구불변한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결국 거짓된 것일 따름이다. 그럼에도 內外中間 어디에도 없는 도를 찾으라고 하고, 가는 것도 오는 것도 그렇다고 머무르는 것도 없는데 삼세의 가고 옴을 말하기도 하며, 견성하라고 가르치고, 보고도 알지 못하는 일을 알라고 가르치니, 이 어찌 허물이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 | | | | | | |
|----|------|------|----|------|------|
| 40 | 보고도 | 못알일을 | 41 | 알라하고 | 가르치니 |
| 42 | 妄想허물 | 절로되내 | 43 | 心行處滅 | 한것인데 |
| 44 | 觀心하라 | 일렀스니 | 45 | 分別허물 | 아니될까 |
| 46 | 言語道가 | 끈쳤는데 | 47 | 話頭하라 | 일오으니 |
| 48 | 戲論허물 | 절로되내 | | | |

인간은 자기의 마음을 알지도 못하고 見性했다고 하고 言語道斷인데 話頭하라 하니 모두 허물이라 했다.

『열반경』에서는 불성을 자각하는 것을 “了了見佛性”이라고 하는데, 선불교에서 주장하는 ‘見性’이란 말은 여기에서 비롯된 말이다.

선은 침묵의 세계다. 선은 분명히 침묵을 존중한다. 僧堂·목욕실·화장실은 예로부터 3침묵당이라 하여 웃고 떠드는 행위가 허용되지 않았다. 사람의 말은 침묵에서 나온다. 침묵에서 나왔다가 침묵으로 돌아간다. 말이란 그런 것이다.

道의 성격으로서 첫번째 들 수 있는 것은 不可言語性이다. 道는 言語로 한정할 수 없다. 老子는 이 사실을 『老子』書 첫머리에서 지적하여 말하기를 “言語로써 표현할 수

12) 入矢義高 著, 辛奎卓 譯, 『禪과 文學』, 藏經閣, 1993, p. 187.

있는 道는 常道가 아니다.”¹³⁾라고 하였다.

道는 言語로써 한정할 수 없다. 言語로써 한정된 道는 벌써 道가 아니다. “道는 深遠하여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¹⁴⁾

49 完爾상존	無起滅애	50 四相法을	일러시니
51 근들아니	허물인가	52 性含萬相	總持법을
53 一物이라	알렷시니	54 守空허물	되앗서라
61 이러키로	해야리면	62 무삼方便	行하와야
63 허물된病	다고치고	64 眞實道로	精進할꼬

衆生이 實在라고 믿는 我相・人相・衆生相・壽者相의 네 가지 相으로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니 八正道로 修道하라고 했다.

마음이 공한 줄 아는 것을 이름하여 부처를 안다고 한다. 만약에 마음이 공한 줄을 알아 겉모습을 보지 않으면, 즉 迷悟를 여의게 된다. 心相이 속이 깨끗하여 마치 허공처럼 되면, 즉 心身 속에 있는 팔만사천 번뇌의 病本에서 벗어나게 된다.

空의 원뜻은 『說文解字』를 들추어 낼 것도 없이 ‘竅’(孔・穴)로서, 여기에서 유추하여 무엇인가 결여되어 있는 것, 또 결여된 상태를 ‘空’이라 한다¹⁵⁾. “말법 시대 악한 세상에 달프구나. 중생들은 박복하여 공부 어렵네. 선인과는 멀어가고 사견만 깊어 마는 세교법은 약해 해침 많구나.”¹⁶⁾ 三期 末劫에 修道하여 成佛하려면 八正道로 修行해야 한다.

八正道는 正見・正思・正語・正業・正命・正精進・正念・正定이다.

팔정도의 각각의 수행은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며 각기 다른 수행을 돕는다. 이 여덟 가지 요소는 불교의 수행에 있어서 세 가지 핵심인 戒・定・慧의 삼학을 돕는다.

정견・정사로써 인간의 고통과 고통의 원인을 알며 고통이 사라진 이상적 상태를 목표로 삼는다(慧). 정어・정업・정명으로써 목표를 이루기 위해 실천한다(戒). 정정진・정념・정정으로써 욕망집착을 끊고 마음을 오로지 하나로 집중하면 해탈할 수 있다.

69 無非허물	다될지며	70 허물이라	하올진대
71 凡夫난	永作凡夫	72 聖賢은	本來聖賢

13) 老子, 《道德經》 1章, “道可道, 非常道”.

14) 知北遊篇, p. 741, “夫道, 窅然難言哉!”

15) 入矢義高 著, 辛奎卓 譯, 『禪과 文學』, 藏經閣, 1993, p. 183.

16) 玄覺禪師, 前掲書, p. 384. “燈未法 惡世時 衆生薄福難調訓 去聖遠兮邪見深 魔強法弱多怨害.”

73 明昧利鈍	의론할까	74 허물中에	善察하면
75 眞實道에	절로들어	76 허물아니	되난妙理
77 그中에	잇나니라	78 出格丈夫	들어보소

凡夫들은 無常苦를 善察하면서 오만과 독선으로 남과 是非하지 말고 眞實道를 구하라고 했다.

우리의 오만과 독선은 춤과 노래를 짓는 바다에 묻어 버리고, 是와 非는 청산에 감춰 버리고, 이제 믿음과 화합, 자각과 봉사, 지혜와 웃음으로 우리들 가슴마다에 種子로 키우며 부처님의 참교훈이 무엇인가를 진정한 마음으로 헤아려 보자고 했다.

『법구경』 자신의 장에서 “자신에 의해 악은 행해지고 자신에 의해 사람은 더러워진다. 자신에 의해 악은 행해지지 않기도 하고 깨끗해지기도 한다. 깨끗함과 더러움은 자기 자신에 달려 있다. 아무도 남을 깨끗하게 할 수 없다.”고 부처님은 말씀했다.

善根으로써 十方세계에 널리 미치되 위로는 有頂天까지 다하고 아래로는 風輪에까지 다하여, 천상 인간과 六道의 여러 몸과 일체 중생에게 나의 온갖 공덕을 모두 주고, 중생과 함께하되 미진점이 다하도록 하여 한 중생만이 아니요, 나에게 있는 선근을 따라 모두가 다 충분히 젖어들게 하여야 한다.

莊子は 인간의 기본적 欲求로서 눈·귀·입·몸 그리고 心地를 들고 그들이 追求하는 對象으로서 빛깔·音聲·맛·安逸과 滿足 등을 들고 있다. 그리고 人間들은 富貴·長壽·善名을 貴하게 여기고 貧賤·夭折·惡名을 賤하게 여긴다고 보고 있다¹⁷⁾.

人間은 또한 欲求對象을 追求하는 사이에 他人과 對立·葛藤·鬭爭을 벌이기도 한다. 欲求對象 가운데 標本이 되는 것은 名利이다. “衆人들은 利를 重視하고 淸廉한 사람들은 名譽를 重視한다.”¹⁸⁾

無常의 깨달음에 도달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參禪者들의 한결같은 바람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자기의 앎이 無常하여 거저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괴로움(苦)에서 출발하는 것이며, 이런 괴로움을 거듭해서 이겨낼 때 도달할 수 있는 세계인 것이었다.

2. 默照禪

默照禪을 寂照禪이라고도 한다. 默은 寂默의 뜻이며 照는 照了의 뜻으로 定慧圓明

17) 李康洙, 『道教思想의 研究』, 高麗大 民族文化 研究所, 1984, p. 17.

18) 刻意 篇. p. 546, “衆人重利, 廉士重名”.

의 뜻이다. “默은 오직 지극한 말이요, 照는 널리 옹할 뿐이다.”라고 하여 默照家들은 자기들만이 정통적인 禪이라 하였다. 禪의 깨달음이란 결국 정신통일에 의해서 眞我에 명합한 경지를 말한 것이다.

79 本來空寂	일녇서도	80 見聞覺知	분별내고
81 平等不動	일녇시나	82 對境하면	亂動하고
83 不生不滅	일녇시나	84 因지으면	果맞으며
85 不增不減	일너시나	86 作善作惡	길다르고
87 有相無相	둘아니나	88 理와事와	相對하고
89 本來淸淨	무물이나	90 隨緣現色	각각이며

凡夫는 매사를 분별하고 亂動하여 作惡하니 無念으로 淸淨한 天良心으로 살라고 했다. 『법화경』에

전생 일을 하고자 하느냐?
금생에 받는 것이다.
내생 일을 알고자 하느냐?
금생에 하는 그것이다.

라고 했다. 전생에 내가 착한 사람이었나 악한 사람이었나를 알고 싶으면 금생에 내가 받는 것, 곧 지금 내가 행복한 사람이나 불행한 사람이나를 살펴볼 것이며 내생에 내가 행복하게 살 것인가 불행하게 살 것인가를 알고 싶으면 지금 자신의 하는 일을 보면 알 것!¹⁹⁾이라는 것이다.

無念이 實相이요, 眞空이며, 般若다. 반야이기 때문에 거기에 知見이 있다. 지견은 실상의 無生을 알고 보는 (知見) 것이다. 그래서 眞을 비추고 俗을 체달한다. 진도 속도, 理도 事도 진공 가운데서 바야흐로 그 如如한 성품을 지닐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禪에서 근본(宗)으로 삼는 바다.²⁰⁾

탐냄과 성냄과 사된 소견은 意業이요, 거짓말과 꾸며대는 말과 두 가지 말과 악한 말은 口業이요, 살생과 도둑질과 음행은 身業이다. 총괄적으로 열 가지 악을 열거하여 觀行의 대상을 삼았다.²¹⁾

큰 도를 구하려고 뜻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먼저 三業을 청정히 닦아야 한다. 악을 그

19) 구보회 편, 『성철스님 법어』, 고려문화사, 1995, p. 214.

20) “無念是實相 眞空知見是無生 般若照 眞達俗 眞空理事皆如 此爲宗本也.”

21) “貪瞋邪見意業 妄言綺語兩舌惡口口業 殺盜淫身業. 總列十惡 爲觀行境.”

치고 선을 행해야 하나니, 좋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그침이요, 둘째는 행함이다. ‘그침’이란 다만 앞의 악만을 그쳐 남을 괴롭히지 않음이요, ‘행함’이란 훌륭한 덕을 수행하여 일체 중생을 이롭고 편안케 함이다.²²⁾ 惡人은 知識・誓約・道德・技巧에 의하여 살아가지 않고 自己의 本性이 흐르는 대로 살아 간다.

95	不垢不淨	無染하나	96	地獄天堂	가추잇고
97	方圓長短	엇다하나	98	麤細相이	各各이고
99	內外中間	엇다하나	100	達者用心	분명하고
101	去來住着	엇다하나	102	六途法界	가추잇고
103	알고도	못본다나	104	運動行止	엇지안코

凡夫는 마음으로 인하여 모든 差別이 있으니 外物에 집착하지 말고 平常心으로 살라고 했다.

『法句經』 忿怒品에 “노여움을 참고 거만을 버려라. 세속적인 속박을 넘어서 명색에 집착하지 말아라. 노여워 하지 않음으로써 노여움을 극복하고, 선행에 의하여 布施을 베풀음으로써 인색함을, 진실로써 거짓을 극복해야 한다.”고 했다.

『菜根譚』에는 어느 禪師께서 다음과 같은 선시를 남기셨다.

竹影掃階	바람에 흔들리는 대나무 그림자가 계단을 쓸듯이 하여도
塵不動	먼지는 일어나지 않고,
月輪穿沼	달이 연못 밑바닥을 꿰뚫어 비추어도
水無痕	물에는 상처를 입히지 않는다. ²³⁾

바람에 흔들리는 대나무 그림자가 뜰에 비추어도 먼지 하나 일지 않고, 달빛이 연못의 물 속에 드리워도 물결이 일지 않듯 항상 外物에 동요하지 말고 평정한 마음으로 사물을 대하면 얼마나 자유롭겠는가 라고 했으니 조용한 마음으로 대하야 하겠다.

기러기는 수만리 창공을 날아가면서도 하늘에 자욱을 남기지 않지만 누구인가는 기러기가 날아간 것을 안다. 것처럼 숨어서 행한 어떤 자비행과 악행이라도 부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

22) “夫欲志求大道者 必先淨修三業 息惡行善 善有二種 一止二行 止則但 止前惡 不惱於他 行則修行勝德 利 安一切.”

23) 佛教新聞社 編, 康楠, 「文字속에 숨은 뜻」, 『說法』, 우리출판사, 불기 2531, p. 275 參照.

육계에는 사왕천 · 도리천 · 야마천 · 도술천 · 화락천 · 타화자재천 등 육육천이 있다. 이 중에서 가장 하천이 사왕천에서, 상천인 화락천이나 타화자재천에도 출생할 수 있고, 또 화락천의 천인이 하층의 사왕천에 타락하여 출생할 수도 있다.²⁴⁾

109 言語道가	끈뚫시되	110 臨時制變	문답하고
111 完爾常存	일렀시나	112 잡어볼수	전혀없고
113 無物無染	일렀시나	114 十八界가	賓主되고
115 虛含萬相	總持하나	116 實際에는	無物이고
117 起滅數論	일렀시나	118 一真相이	常存하나

衆生の 心意作用이 미치지 못하는 心行處滅 곧 思量分別이 끊어지지 않으면 眞道を 구할 수 없다고 했다.

自然과 벗함을 지나 物我が一體다. 冊曆 속에서 季節을 찾는다. 老子는 “함이 없이 일을 처리하고 말하지 않고 가르침을 행하는 것”²⁵⁾이 自然의 道를 體得한 사람이다. 또 “常使民無知無欲”이라 하였다. ‘數間茅屋’이 내집이 아니라 ‘滿山蘿月’이 내집이다. 完全한 無欲이다. 그리고 有識이 ‘내分’이 아니고 ‘어리(愚)고 하암(鄉闇)’이 ‘내分’이다. 이는 無知다. 이런 경지가 바로 道家的 物我一體의 경지인 것이다.²⁶⁾

『傳燈錄』二十八에 수록된 馬祖의 긴 설법 중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道는 닦을 것까지는 없다. 더럽히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무엇이 더러움인가? 대체로 生死의 마음 으로 造作(意志)하고, 行爲하는 것은 모두 더러움이다. 선뜻 大道를 파악하고 싶으면, 平常心이 도이다. 무엇이 平常心이나 하면, 造作이 없고, 是非가 없고, 取捨가 없고, 斷常이 없고 凡聖이 없는 마음이다. 經典에는 “凡夫의 생활도 아니며 聖者의 생활도 아닌 것이 보살의 생활이다.”고 하고 있다. 현재에 行住坐臥하고, 상대에 應하여 사물을 받아 멈추게 하는 마음의 움직임이 모두 道다. 道야말로 實在다.²⁷⁾

禪이란 망명을 쉬고 진성을 길러 인간성을 회복하자는 것으로 결국 인간 완성을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그러므로 선은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공부법이며 용심법으로, 일본 일각도 마음을 놓지 않고 선공부로서 재가 출가 남녀 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라도 곳과 때를 가리지 않고 쉽게 할 수 있는, 간단하면서도 반드시 필요

24) 오형근, 『불교의 영혼과 윤회관』, 새터, 1995, pp. 90~91.

25) “處無爲之事 行不言之教.”

26) 李鐘殷, 『韓國 詩歌上의 道教思想 研究』, 普成文化社, 1982, p. 78.

27) 柳田聖山 著, 徐景洙 · 李沅河 譯, 『禪思想』, 韓國佛教研究院, 1984, pp. 125~126.

한 공부인 것이다.²⁸⁾

119 數多言句	일을 말삼	120 허물이라	嫌疑 말고
121 그中の	精進하면	122 眞實道에	깊이드러
123 住着想이	절로 업고	124 出入업난	解脫門이
125 두렷이	절로 놓고	126 去來업난	一眞相이
127 完爾常存	現前이라		

修道人은 十惡²⁹⁾을 짓지 말고 眞道를 찾기 위하여 佛法을 修行하면 解脫할 수 있다고 했다.

臨濟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門道の 친구여, 마음이란 일정한 모습이 없으며, 十方에 보편되어 있다.

눈에 작용하면 보고 귀에 작용하면 듣고, 코에 작용하면 냄새를 맡고 입에 작용하면 말하게 되고, 손에 작용하면 물건을 쥐고, 발에 작용하면 걸어 다닌다. 원래 하나의 활력이 여섯 개의 기능으로 나누어지는 것이다.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디에서든지 解脫할 수 있다.

修行에 의하여 純粹精神의 智가 完成될 때에 解脫이 되는 것인데 根本質料因의 방향으로 생긴 것이어서 純粹精神 그 自體에는 아무런 變化가 없는 것이다.”³⁰⁾ 그러므로 解脫에 도달한 사람도 거기서 바로 죽는 것은 아니다. 現世의 壽命은 前世의 業의 潛在力에 의하여 先天的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그 壽命이 다할 때까지 生存을 存續시키며 壽命이 다할 때 비로소 죽음을 당하는 것이다.

解脫하여도 아직 生存을 계속하고 있는 狀態를 生前解脫이라고 하며, 死後에 二元이 完全하게 分離되는 것을 離身解脫이라고 한다.

자연의 질서와 본질을 불교에서는 ‘法’(Dharma)이라고 하며 중국에서는 ‘道’라고 말하고 있다.³¹⁾ 法이라는 글자는 ‘물(水)이 흘러 간다(去)’라는 의미를 따서 만든 것이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물이 흐른다는 자연의 본질성과 불변성의 법칙성에 의거한 것이다.

28) 김제영, 「원불교 무시선에 대한 고찰」, 《圓佛敎學研究》第24輯, 圓光大 圓佛敎學研究會, 1994, p. 124.

29) ①殺生 ②偷盜 ③邪淫 ④妄語 ⑤兩舌 ⑥惡口 ⑦綺語 ⑧貪慾 ⑨瞋恚 ⑩邪見.

30) 朴東琪, 「禪이 跆拳道에 미친 影響」, 東國大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p. 15.

31) 鄭性本, 『禪佛敎란 무엇인가』, 三圓社, 利花文化社, 1994, p. 122.

133	六根門을	구지다더	134	六賊中の	한놈이나
135	자취업시	비치거던	136	劍鋒으로	打殺하고
137	뒷자취를	아조끈코	138	찌드잔케	가다듬아
139	煩惱賊을	다버히고	140	政事官이	되야안저
141	萬般政事	다사리되	142	善事惡事	양사중에

六根³²⁾을 매개로 하여 중생의 證果에 이를 수 있는 功德을 빼앗고, 煩惱를 일으키므로 一切唯心造를 깨달아 參禪하라고 했다.

“문으로 들어온 것은 자기 집의 보물이 될 수 없다.(從門入者, 不是家珍)”라는 禪語가 있다. 외부에서 구해온 것은 때가 되고 인연이 다하면 되돌아 가거나 없어지는 무상한 것이기 때문에 참된 보물이 될 수 없다.

눈·귀·코·혀·몸·뜻 이것을 여섯 도둑이라 한다. 이것을 잘 교화하면, 눈 도둑은 변해서 日月光明世尊이 되고, 귀 도둑은 聲聞如來 부처님이 되고, 코 도둑은 香積如來 부처님이 되고, 또 입 도둑을 잘 교화시키면 法喜如來 부처님이 되고 몸 도둑을 잘 교화시키면 毘盧遮那 부처님이 되고, 뜻 도둑을 잘 교화시키면 不動光明如來가 된다. 이 여섯 도둑이 여섯 부처님이 된다.³³⁾ 여섯 부처님이 되면 그 사람이 완전한 人格을 갖춘 사람이 아니겠는가?

二十八宿가 있어서 인간세상의 선과 악을 조사한다. 또 定盤星이라는 별이 있는데, 다른 별들은 다 움직이지마는 이 정반성은 움직이지 않는다. 우리도 정반성과 같이 心柱가 銀山鐵壁과 같이 동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 얼굴에 두 눈과 두 귀와 콧구멍 둘과 입까지 합하면 일곱 문이 되니 이것이 『大方廣佛華嚴經』이요, 우리 일상생활이 華嚴法門이요, 우주 삼라만상이 모두 『華嚴經』을 항상 說法하고 있다.

그리고 손가락이 열이요 발가락이 열이요 얼굴에 일곱 구멍과 대·소변 보는 데와 배꼽을 합하면 열이니, 이것이 곧 『華嚴經』 가운데 十信·十住·十行을 설하는 요긴한 것이다.³⁴⁾

이『大方廣佛華嚴經』의 大意는 만법을 거느려서 한 마음을 밝힌 것이다.

155 고요한대 處하야도 156 妄想分別 쓰지말고

32) 眼·耳·鼻·舌·身·意.

33) 古園明正 編, 『鏡峰스님 말씀』, 極樂禪院, 1992, p. 84.

34) 土掘書, p. 105.

157	大衆中에	處하야도	158	他是非를	論치 말고
159	貧病乞人	내길 커든	160	힘을조차	救濟하며
165	動靜二邊	作用중에	166	自心性을	비취오면
167	無形無相	본래淸淨	168	空有二相	雙亡하고

衆生이 고요한 곳에 있어도 十信으로 자기의 心性을 廻光返照하면 無形無相이 淸淨해진다고 했다.

禪定을 수행하는 목적이 바로 이 번뇌망상을 제지하고 본래 청정한 마음에 계합하는데 있다. 우리들은 禪定을 통하여 산란심을 제지하는 소극적 목적에 그치지 말고, 나아가 마음을 한곳에 집중함으로써 어떤 대상을 철저하게 관찰하는 적극적 목적이 있다.

『화엄경』에서는 “믿음은 자기의 종교(道)를 이룰 수 있는 근본이며, 공덕의 어머니.”라고도 말하고 있으며, 또 『대지도론』에서도 “佛法인 진리의 세계는 믿는 마음이 철저(信心)해야 능히 그 속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도 설하고 있다.

信心은 불도를 배우는 근본이며 출발점인 것이다. 이 心을 보통 佛性이라든지 心性이라는 말로 表現하고 있는데, 禪에서는 이것을 人心・自性・見性成佛의 性・自己 本來의 面目이라고 表現하여 佛教의 餘他思想에서 볼 수 없는 한 特色을 이루고 있다³⁵⁾.

禪의 깨달음이란 결국 정신 통일에 의해서 眞我에 계합한 경지에 이름을 말한 것이다. 禪宗은 그 敎理의 배경에 般若의 空, 즉 순수하게 활동하는 空을 띠고 있으니 이른바 절대아를 우리 일상생활에 표현할 것을 역설하였다.

고래로 “敎外別傳 不立文字” 혹은 “直指人心 見性成佛”의 말로써 禪의 특징을 드러내고 있다. 왜냐하면 일체의 문자나 언어상의 설명으로써는 철저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언어나 문자에 구애되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眞理를 바로 깨치려고 하는 것이 禪의 근본 목적이기 때문이다.³⁶⁾

181	心行處가	업다하네	182	이境界를	當하오와
183	곳코를	못잡으면	184	無紀空에	떠러지네
185	體同太虛	본적하니	186	다른商量	내지 말고
187	是甚麼로	方便삼아	188	輾轉히	覺覺하면
189	百千方便	억만說話	190	이곳에난	술대업네

35) 藤吉慈海, 「禪淨雙修의 展開」, 東京:春秋社, 1979, p. 220.

36) 全明星, 「禪의 種類와 그 哲學的 意義」, 『佛敎學論文集』, 雲門僧伽大學 出版部, 1991, p. 287.

‘나’를 구성하고 있는 肉體的 要素와 정신적 요소인 오온이 공한 것이다. 오온이 공한 道理를 自覺할 수 있는 參禪을 하라고 했다.

불성은 대승불교에서 주장하는 “일체의 모든 것은 공한 것” 혹은 “일체의 모든 法은 모두 실체가 없이 공한 것”이라는 그 사실을 깨닫는 주체이며 覺性인 것이다.

선불교의 사상과 실천정신을 살펴 볼 때 대승불교의 근본정신은 반야의 지혜와 공의 실천 사상이 토대를 이루고 있다.

宗密은 「禪源諸詮集都序」에서 禪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禪이라고 하는 이 印度語는 구체적으로 말하면 禪那인데 中國에서 번역하여 思惟修라 하고 또한 靜慮라고도 했다.”³⁷⁾ 그런데 여기에서 禪那라는 것은 印度의 古俗語(Pali語) Jhāna의 音譯語이고, 이 Jhāna에서 後部の 母音 a가 떨어져 나가 音寫된 것이 禪이다. 用語, 즉 Jhāna, Dhyāna, Samādhi를 구분한다면, Jhāna는 巴利語로써 靜慮의 概念이고, Dhyāna는 梵語로써 靜慮이고, Samādhi는 梵語로서 단지 定の 概念을 갖고 있다고 하겠다.³⁸⁾

201 有相耶아	無相耶아	202 行住坐臥	語默동정
203 念念불매	是甚麼오	204 行也坐也	同運하며
205 去也來也	여임업내	206 前念後念	頓斷하고
207 일렘現前	圓明道理	208 衆生諸佛	중감업내
209 歷千劫以	不古하고	210 亘萬世而	長今아라

衆生은 自己를 精確하게 보도록 이끄는 禪을 해야 한다. 行住坐臥하면서 修道해야 한다. 五欲七情을 떠난 無念・無心으로 精進하라고 했다.

불교에서는 절대적인 神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으며, 자각의 주체적인 자아의 불성 그 자체도 본래 공한 것이며, 無我인 것이라고 강조한다.³⁹⁾

선불교의 실천 정신은 마음을 어떤 대상이나 경계에 머무르게 하지 않는 실천으로 ‘無住心’, 마음에 하나의 생각도 남겨 두지 않는 ‘無所有’, 혹은 한 생각의 번뇌와 망념이 없는 본래심의 실천으로 ‘無念’, 또한 한마음 한생각도 일어나지 않는 근원적인 평상심의 경지를 ‘無心’ 등이라는 말로 강조하고 있다.

37) 宗密, 「禪源諸詮集都序」, 대정신유대장경간행회 편, 『대정신유대장경』, 권제48(동경 : 대정일체경간행회, 1928), p. 399.

38) 鄭仁鎬, 「韓國禪家の 淨土觀에 대한 考察」, 東國大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82, p. 5.

39) 鄭性本, 前揭書, pp. 51~52.

修道人は 마음을 잘 비울 줄 알고 發心을 크게 하여야 한다. 천하에 지극히 큰 것은 도이며 지극히 公인 것이 眞理이다. 道는 곧 眞理이다. 우리 인생이 참된 도리를 닦아 성인이 되고자 하든지 훌륭한 참 사람이 되기 위하여 수도를 할려고 하면 먼저 냄새나는 마음을 쉬고 비워야 도를 알게 된다. 수도하는 사람의 마음은 자기의 눈 속과도 같이 맑아야 한다.

『金剛經』四句偈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聲前眉語傳 소리 전에 눈썹말이 전하고
默然眼微笑 묵연히 있다가 눈이 미소 짓네

우리가 입으로써 말을 한다고 하지마는 눈썹이 말을 하고 눈만 껌벅하고 눈만 떠도 불법의 소식을 전하고 다 통한다. 저 청과조합에 가보면 어디 말을 하느냐, 손만 내 저으면 거기서 값이 다 나온다. 그러니 眞理法門이라는 것은 眞理는 無言이니 참된 理致는 말이 없고 無法可說이라 法을 가히 설할 것이 없는 것이 說法인 것이다.

235	밤새도록	가고보면	236	해도들때	아니불까
237	今時大覺	못일워도	238	聖地種子	어더쓰니
255	이념으로	衆生諸佛	256	一理齊平	하다하니
257	理平은	올커니와	258	苦樂은	不平하니
259	이게무삼	道理던고	260	有智丈夫	살피시오

<參禪曲> 末尾에서는 修道하는 禪에 滋味부터 懈怠하지 않으면 見成할 수 있다고 했다.

禪에는 공식적인 논리가 부정된다. 일반적인 논리를 파괴한다. 선의 논리는 질서를 철저히 무시하며 이론을 완전히 배격한다. 혁신논리나 인식논리가 여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⁴⁰⁾ 선에서도 일반적으로 順理의 것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선이 가지고 있는 특유한 논리는 아니다. 선만이 享有할 수 있는 독특한 논리는 이러한 일반적인 것을 초월한다. 또 이것은 順理의 것보다 훨씬 힘있고 優位에 있다.

禪門은 見性이 근본이니 見性은 眞如自性을 徹見함이다. 自性은 그를 엄폐한 根本無明 즉 第八阿賴耶의 細妄念이 永絶하지 않으면 徹見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禪門正傳의 見性은 阿賴耶의 微細가 滅盡한 究意妙覺 圓證佛果이며 無餘涅槃 大圓鏡智이다. 見性 방법은 佛祖 公案을 參究함이 가장 첨경이다⁴¹⁾. 見性을 하면 卽時에 究意無

40) 金雲學, 「禪語의 象徵性」, 『韓國文學論 研究』, 大學文化社, 1978, p. 110.

41) 退翁 性徹, 『禪門正路』, 佛光出版社, 1983, p. 2.

心境이 現前하여 약과 병이 전부 소멸되고 敎와 觀을 다 休息하느니라.

元曉와 賢首는 敎宗의 權威이다. 微細無明인 第八阿賴耶識이 滅盡하면 無餘涅槃인 佛地 즉 究竟覺이어서 이것이 無念, 즉 無心이며 見性임은 佛敎의 根本原理이다.

老子는 말하기를 “道가 높고 德이 貴한 것은 命令함이 없어 언제나 절로 그러하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道가 중요한 까닭, 德이 萬物에 대하여 珍貴한 까닭은 그것이 萬物로 하여금 스스로 生長·發展케 하고 發號施令치 않는다는 데 있다는 것이다.

『心經』에 “無罣碍無罣碍故無有恐怖”라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면 공포증이 없다고 했다. 무엇인지 마음에 하나 걸려 있기 때문에 공포증이 있고 겁이 나는 것이지, 마음에 걸림이 없으면 아무 공포증도 없는 것이다.

『금강경』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凡所有相	무릇 상 있는 것이
皆是虛妄	다 허망하다
若見諸相非相	만약 모든 상을 상 아닌 것으로 볼 것 같으면
卽見如來	곧 여래를 본다.

고 했다. 이 천지도 成住壞空이 있듯이 사람의 몸뚱이도 나면 늙고 늙으면 병 들고 병 들면 죽는 生老病死의 네 가지 고통이 있는 것이다.

III. 作品에 나타난 空思想

불교는 成佛을 최대의 목표로 삼고 있다. 불교의 空思想에 있어서 緣起와 中道思想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이는 緣起法은 곧 空法이며, 中道思想이기 때문이다.

空思想은 一切의 法을 空의 개념에 歸着시켜 諸法은 空이라고 주장하는 교학을 말한다. 어떤 경우에도 空의 개념에 辨證되지 않는다면 결코 空思想이라고 말할 수 없다. 空이라는 개념을 분석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空은 無自性한 것으로 定義를 내리고 空觀에 의한 成佛을 연구한 교학이므로 이를 空의 辨證法⁴²⁾이라 한다. 空思想은 諸法은 虛

42) 元曉의 大慧度經宗要에서 용수의 辨證法的 論證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諸法의 실상은 모든 주장이 단절되어 ‘그런 것’이라고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고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용수보살은 『大智度論』에서 말하기를 智慧(반야)는 모든 법의 실상이라고도 하고, 모든 법의 실상이 아니라고 한다. 모든 법의 실상이기도 하고 실상이 아니기도 하여, 모든 법의 실상이 아니라면 실상이 아닌 것은 없다. 그러므로

相임을 노증함과 아울러 虛相의 모순을 論破하고 諸法實相의 眞實性을 논증하기 위하여 空一言之 概念에 일체의 법을 귀착시키는 이론의 합리성을 意味論의 會通論과 緣起論・中道論・歸謬論理 등으로 전개하고 있다. 우선 空・空義・空性은 空思想에 있어서 기본 언어이다.⁴³⁾

중국에는 空義와 空性은 同義語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Śūnyatā를 空義 또는 空性이라고 漢譯하고 있다.⁴⁴⁾ 空・空義・空性은 말은 서로 다르나 意味로서는 同義語가 된다. 비어 없다(無)는 意味에 서로 다른 말(空・空義・空性)을 會通시켜 同義語가 된 것이다. 이를 意味論의 會通이라고 한다.

龍樹는 佛陀가 說하신 根本佛敎는 바로 空觀이라고 말하고 있다. 부처님은 모든 煩惱는 空이라고 說하셨다. 邪見으로 智慧가 鈍한 사람은 空은 있다고 주장하고, 空은 없다고 주장하여 오히려 번뇌를 일으켜 열반의 道를 얻을 수 없기에, 이와 같은 戲論의 양극을 떠나는 것이 中道의 진리이며, 열반의 길이라는 것을 역설하기 위해 言語 그 자체 또한 空이지만, 空 그 자체를 直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열반의 길임을 言說으로써 설명한 것⁴⁵⁾이라고 한다. 智瑩의 <參禪曲>에서는 空思想이 두드러지게 잘 나타나 있는데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 •	본래空寂 無相事를	漏泄하야 일으려니	엇지아니 허물인고
• •	性含萬相 總持법을	一物이라 일럿시니	守空허물 되앗서라
• •	出格丈夫 들어보소	本來空寂 일녓서도	見聞覺知 분별내고
• •	自心性을 비취오면	無形無相 본래淸淨	空有二相 雙亡하고
• •	이境界를 當하오와	곳코를 못잡으면	無紀空에 떠러지내

『雜阿含經』卷9에서⁴⁶⁾ “世間이 空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눈이 空이기 때문이며, 常(nitya)은 항상 변함이 없는 것이므로 法도 空이며, 我所도 空인 것이다. 따라서 眼・

모든 법의 실상이다.”

43) 申賢淑, 「大乘佛敎와 空사상의 展開」, 『불교학보』 第27輯, 東國大學校, 1990, p. 138.

44) 空性 Śūnyatā의 tā는 義에 해당하는 말로서 空은 “性이 빈 것”이라는 말이므로 空義는 空性이라는 말이다.

45) 『中論』 卷 2, 大正30, p. 18.

46) 『雜阿含經』 卷 9, 大正 2, p. 56.

耳·鼻·舌·身·意도 모두 그러하므로 空世間이라 한다”고 말하여 法과 我所도 空이며, 眼·耳·鼻·舌·身·意의 色我도 空이며, 따라서 이 世間을 그대로 空이라고 설명하고 또한 이렇게 空이라고 주장하는 空觀은 바로 열반의 길이라고 설하고 있다. 『雜阿含經』卷1에서 “色·受·想·行·識의 五蘊 모두가 無常하다고 觀하는 것을 正觀이라 하고 心解脫이라 하고, 自證이라 하고, 非我라고 觀함은 또한 다시 이와 같다.”고 하여 空觀은 곧 解脫의 方法이라고 한다.

無我 즉 我는 空이라는 말이다. 我가 空이므로 諸法 또한 空이라는 주장이 성립된다. 즉 我的 構成 요소를 色·受·想·行·識의 五蘊이라고 함으로써 5종의 요소로서 구성된 것이 我이므로 主者が 없는 空이다. 여기서 我는 色이라는 物質과 受·想·行·識이라는 精神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我的 存在는 物·心 양면을 말하는 것이다. 我法을 오온에 분석한 것처럼, 色法은 地·水·火·風이라는 四大로 구성되어 있으며, 受·想·行·識은 다시 眼·耳·鼻·舌·身·意라는 六根과 色·聲·香·味·法·觸이라는 六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十二處(공간)라고 한다. 識과 六根의 관계에서 六識의 역할이 있고, 六識과 六法의 관계에서 客觀의 六境이 있다. 六根·六境·六識의 관계에서 業과 煩惱 등의 무수한 세계를 형성한다.

대승불교가 주장하는 바 法 또한 空한 것이며, 無我는 我空·法空이다. 一切의 法을 空이라고 正觀하는 것이 바로 열반의 길이며, 해탈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寂滅·寂淨한 열반의 세계는 眞空妙有임을 설명하기 위해 부처님은 空觀을 설명하셨다.

客觀이 될 수 없는 時間은 存在치 않는 ‘空’이라는 것이다.

단지 諸行인 心理現象은 마음의 그림자와 같을 뿐이다. 그러므로 原始經典인 『雜阿含經』卷10에서⁴⁷⁾ “一切諸行은 空寂하여 얻을 것이 없다.”고 하여 일체 모든 心理現象 또한 空이며, 緣起法則에 따른 衆因緣의 和合으로 “一切行은 皆空이며, 愛와 欲을 모두 버리는 것이 열반이라고 한다.”⁴⁸⁾

龍樹는 八萬四千의 法이 衆生成佛을 위해 說하였다 하나 이는 모두 空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空이란 어떤 물건이 있다가 없어진 상태나 무엇이 텅빈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 아니라, 영원불변의 실체나 自性이 없다는 말이다.

이런 空思想은 我空과 法空으로 나뉘어지기도 한다. 我空은 人空 또는 生空이라고도 하

47) 『雜阿含經』卷 10, “一切諸行空寂 不可得.” (大正2, p. 66 · a).

48) 『雜阿含經』卷 10, “於一切行皆空 皆悉亦不可得 愛盡離欲滅盡涅槃.” (大正2, p. 67 · a).

는데, 중생들이 고집하고 있는 ‘나’라는 것이 無我임을 말하여 空함을 밝힌 것이다.

IV. 修辭法

문장의 표현기교란 지은이의 사상이나 감정을 보다 아름답게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효과적인 표현이란 글로써 사물을 정확하고 명료하게, 새롭고 매력있게 구사하는 기법을 말하는데, 이를 문장의 표현기교 또는 수사라고 한다. 결국 修辭學이란 말하고 쓰는 사람이 다른 一方의 듣고 읽는 사람에게 사상·감정을 언어·문자에 의하여 가장 효과적으로 그 내용을 분명하게 나타내며 그 취향 등을 훌륭하게 나타내어 이를 듣고 읽는 聽衆이나 讀者가 어떻게 느낄 것인가에 관한 사실이나 이유를 조사하는 학문이다. 표현기교의 삼원칙은 調和의 原則, 具象化의 原則, 增意의 原則이다. 불교가사를 볼 때 가장 두드러진 수사는 對句法·列舉法·反復法·詠嘆法이고, 이밖에 漸層法·問答法·頓呼法·連鎖法·對照法·設疑法 등도 다소 나타나고 있다.

<參禪曲>에는 설의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는데, 설의법은 다음과 같은 수사법이다.

설의법은 답이 분명한 사실을 의문형으로 만들어 문장에 변화를 주는 기법이다. (의미 강조형)

설의법은 분명한 결론을 의문형으로 만들어 독자의 판단에 호소하는 표현 기법이다.⁴⁹⁾ (판단 호소형)

설의법은 분명히 알 수 있는 결론을 일부러 끝맺지 않고 의문 형식으로 표현하여 독자에게 결론을 내리게 하는 표현 기법이다. (대답 유도형)

設疑란 계속되는 평서문의 흐름에서 어느 한 문장을 의문문으로 바꿈으로써 문장의 평탄한 흐름에 굽이를 만드는 수법이다. 설의는 문단의 끝에 자주 온다.⁵⁰⁾ (문장 변화형)

智瑩의 <參禪曲>에 나타난 설의법을 보면 다음과 같다.

何何何 우사올사	허물된말 우사올사	엇지하야 허물인고
본래空寂 無相事를	漏泄하야 일으려니	엇지아니 허물인고
苦樂榮枯 업남 相을	선업악업 分說하니	說者아니 허물인가
體同太虛 本寂한대	妄想煩惱 일러시니	허물이라 못하올까

49) 성기조, 『고등학교 작문』, 학문사, 1996, p. 152.

50) 이상태, 『고등학교 작문』, 형설출판사, 1990, p. 232.

不垢不淨 無染相을	유색무색 詰難하니	自然허물 아니될까
方圓長短 업는相을	性相體用 일렷시니	허물이라 아니할까
內外中間 업난道를	차즈라고 이르오니	그허물이 업다할까
무거무래 亦無住를	三世去來 일렷시니	이아니 허물인가
알고도 못볼일을	見性하라 가툯치니	그허물이 아니될까
心行處滅 한것인데	觀心하라 일렷스니	分別허물 아니될까
完爾상존 無起滅에	四相法을 일러시니	근돌아니 허물인가
無物하야 無念事를	思念하라 이르오니	有想허물 업사올까

佛敎歌辭를 볼 때 가장 두드러진 수사는 對句法・列舉法・反復法・詠嘆法 등이다. 이는 일반적인 시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은유나 직유, 상징과 역설과는 많은 차이를 보여 주고 있다.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첫째는 가사라고 하는 장르적 속성이 산문과 운문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으면서 교화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일반 시가에 볼 수 있는 시어의 함축성과 상징성 구조의 탄력성을 지니지 않고 있다는 점이고, 둘째는 불교가사의 특성으로서 순수한 시가 창작이 아니고 일반 불자들에게 포교의 기능을 염두에 둔 가사이기 때문에 형식미보다는 내용 중심의 진솔시 성격이 강하다 보니 列舉法・反復法・對句法이 많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다. 이것은 일반시가에서 매우 중요시하는 은유와 상징이 거의 나타나지 않음도 그것을 말해 주는 좋은 증거가 되겠다고 하겠다.

시의 세 가지 기법은 律格의 技法, 虛構性的의 技法, 言語의 比喩的의 技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본고에서 다루는 불교가사의 경우 율격은 분명히 드러나지만, 허구성의 기법이나 언어의 비유적 기법은 거의 드러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불교가사의 작가층은 승려 혹은 불자가 대부분이었고, 이들의 가사창작 의도는 시가창작의 순수성보다는 불교 교화라는 傳敎性이 앞서 시가로서의 기교나 긴장미보다는 내용 전달에 더 큰 비중을 두었기 때문에 같은 내용을 對句法이나 列舉法과 反復法의 수사법을 통해 표현하여 작가의 의지를 드러내었다고 하겠다.

V. 結 論

本稿에서 論及한 內容들을 要約 整理하여 結論으로 삼고자 한다.

1) 看話禪에서는 衆生들은 空寂無相事를 누설하고 無高下를 動舌하고, 有相無相이 同一함을 是非할 뿐만 아니라 善惡業을 分說하고 煩惱妄想으로 눈앞의 苦와 樂에 迷하여

三毒이 일어나고, 方圓長短의 相을 논하고, 無形·無情·無名한 道를 求하고자 하니 허물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默照禪에서는 衆生이 어떠한 곳에 있어도 十信으로 자기의 心性을 廻光返照하면 無形無相이 淸淨하니, 修道人은 十惡을 짓지 말고 眞道를 찾기 위하여 佛法을 修行하면 解脫할 수 있다고 했다. 六根을 매개로 하여 중생의 證果에 이를 수 있는 功德을 빼앗고, 煩惱를 일으키므로 一切唯心造를 깨달아 參禪하라고 했다.

3) 參禪曲에는 空思想이 잘 나타나 있다. 불교의 空思想에 있어서 緣起와 中道思想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 緣起法은 곧 空法이며, 中道思想이다. 이 空思想은 ‘空寂’·‘守空’·‘空有’·‘無紀空’으로 參禪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런 空思想은 我空과 法空으로 나뉘어지기도 한다. 我空은 人空 또는 生空이라고도 하는데, 衆生들이 고집하고 있는 ‘나’라는 것이 無我임을 말하여 空함을 밝힌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4) 本稿의 작품에 나타난 修辭法은 設疑法이 두드러지게 잘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작자 智瑩은 승려로서 시가 창작의 순수성보다는 佛教의 布教라고 傳敎性 앞서 시가로서의 기교보다는 내용 전달에 더 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설의법을 많이 사용하여 參禪할 때 廻光返照하게 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